

건강 칼럼

정읍 문학관 세워 1300년 인문 도시 위상 높여야

‘구’ 슬이 서 말이라도 페어야 보배다’는 속담이 응변하듯 위대한 인문학 자산을 활용해 정읍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불길의 과고에 훨씬 더 상실된 인 간성 회복을 위한 인문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읍은 한국 문학 사의 흐를 굳는 기라성 같은 작가들 의 배출로 위대한 문학작품을 탄생 시킨 인문 도시다.

그동안 이런 공인된 가치를 인정 받은 문학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문학관이 없어 아쉬움이 커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지역을 사랑하고 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이 이를 모아 온 결과 정읍 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의 행정절차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언제 어디에 내놔도 공원 같은 아름다운 환경, 풍부한 콘텐츠를 갖춘 내부 공간, 외관만 봐도 개념 활영을 하고 싶은 위치와 접근성, 유사 문화시설과의 연계된 상승효과, 지역경제에 대한 부수적 혜택 등 모든 면에서 후대에도 청진받을 멋진 문학관이 세워지길 기대한다.

그러면 먼저 정읍 문학관 건립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첫째, 문학관 건립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위대한 문학작품이 탄생한 곳이다. 1300년 역사와 기관을 가진 현장 유일의 백제기요 정읍시(井邑詩), 최초의 가시인 상 춘곡(賞春曲), 조선 후기 민간 출판 업자의 상업적 출판물인 태인(泰仁) 방각본(坊刻本)은 정읍이 한국 문학 사의 근간이 된 고장임을 입증한다.

둘째, 현대문화를 능평할 때 숙고



정상섭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해야 할 걸출한 작가들의 출생지가 정읍이다. 1989년 MBC 8부작 드라마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왕자’과 고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장마’ 및 ‘아홉 경계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작가 윤홍길, 모더니즘의 특징인 시각적 효과를 도입해 파격적인 실험정신으로 ‘고무신’의 시조를 쓴 시조시인 장순하, 군부독재 때 한수산 괄화사건 고문 후우증으로 요절한 시인 박정만, 가수 박인희 씨의 힙트곡 ‘하얀 조가비’를 쓴 시인이 강인한, 22개국에서 출판된 정 도로 베스트셀러인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 아동문학이 이준관, 소설가 손흥규 소설가 시인 고광현 등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고장이다.

나아가 문학관 건립의 기대 효과

를 살펴본다. 첫째, 뛰어난 문학 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읍의 인문학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근의 김제 아리랑 문학관, 남원 훈불 문학관, 고창 미당 문학관의 연간 이용자는 약 15~35만 명 정도다. 정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학사적 중요성이 감안하면 위 지역들보다 훨씬 많

글쓰기 교실, 시민 문예창작 교실, 문인들의 문학토론 장소 등 지역 문인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특색 있는 창작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

셋째, 자료만 공개하는 문학실과

장순하, 윤홍길 같은 생존 작가가 원한다면 자신의 문학실에서 자유롭게 기거하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 는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다른 지역의 문학관들은 보

통 작가의 출신지나 작품의 배경이 된 곳에 문학관을 짓는 장소성을 중 시한 결과 도심과는 너무 떨어져 접근성이 문제된 곳이 많아 실제 대중 적 이용이 어려다는 점이다.

정읍 문학관은 이런 단점을 보완

변화되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에 맞게 주된 이용자들이 도심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근린공원 같

은 문학공간이 되도록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정읍 문학관 건립을 위

한 당위성, 조건과 효과는 확고

하다. 지금은 지자체마다 지역의 문

학지원을 활용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고 심지어 다른 지역

의 문학자원까지도 선점해 쓰고 있

다. 위에 정읍 문학관 건립을 위한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시,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

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

으로써 정체성이 갖춰진 문학관은

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회관, 미술

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

벽하게 갖춘 문학도시가 될 것이다.

끝으로 문학관의 시설 구상과 운

영 방법을 살펴본다. 첫째, 한 개인의 명망을 앞세워 민단 대부분의 문

학관의 틀에서 벗어나 ‘정읍 문학

관’이라는 큰 틀 아래 정읍시, 상춘

곡, 방각본, 시, 소설, 수필 등 장르

별 문학실(文學室)을 만들어야 한

다.

둘째, 문학 세미나, 문학 강좌, 유

명 작가와의 대화, 입시생을 위한

사설

노년에 몰락하는 사회지도층

노년에 몰락하는 사회 지도층과 유명인들이 종종 있다. 대부분 돈과 권력, 성(性)에 집착하는 노욕(老慾)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과 재력 또는 유명세로 자리리를 지키려 한다.

부정 축재를 하며 거리낌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다. 결국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집안은 망신이다.

교도소에 가거나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지금도 주변에서 허 허 볼 수 있는 일이다.

성범죄 피해 사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캡페인 미투(Me Too Campaign)’도 노인들에게

서 종종 발생한다. 텁께피인(貪財匪印)이란 재(財)를 탐하면 인(印)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돈과 여색으로 명예와 지위가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재물과 도덕은 양립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물질과 정신은 서로 상극(相克)의 관계로 반대편에 있다.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노년이 좋으려면 노음을 버텨야 한다. 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말과 행동, 습관부터 조심해야 한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전북대 특강

전북대 행정대학원이 국내 최고의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특별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첫 특강은 지난 9월 14일 삼성전자(주) 주은기 부사장이 나눴다.

그는 ‘삼성전자가 보는 미래와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는 전북 발전의 불교는 SW와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찾 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주 부사장은 대기업의 강점이 중소기업들에게 연결되는 분업적 상생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의 강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확실한 미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적용 가능한 실제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이다. 주은기 부사장은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 ‘2019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온탑 신사업 훈장을 받은 바 있다. 협력사의 제

2022년까지 2500개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대 특강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북대 초빙 교수의 ‘문샷싱킹(moonshot thinking)’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는 달을 봐다 자세히 보기 위 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 하겠다는 혁신적인 발상을 뜻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이뤄야 한다.

특강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전략과 해법을 공유하기 바란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멤피스 우체국 총격, 범인 포함 3명 숨져



12일(현지시간) 미 테네시주 멤피스의 오렌지 마운드에 있는 우체국에서 총격이 발생한 후 경찰관이 현장 부근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태풍 곤파스 홍콩 통과, 한가한 거리



제18호 태풍 곤파스가 10일 홍콩을 통과하면서 비옷을 입은 주민들이 텅 빈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곤파스가 홍콩 남쪽을 통과하면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증권거래 소가 휴장했다.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주매일

